

광주서 문예지 '한국창작수필' 창간

한국창작수필문인협 3월 1일자 오덕렬 작가 등 지역 작가 주축 '현대창작 산문 소개' 등 게재 시적인 문장 가미 시문학 지향

전반적으로 문학출판계가 불황인 가운데 광주를 중심으로 문예지가 창간돼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문예지 창간이 시와 소설이 아닌 수필이라는 점에서 화제다.

26일 한국창작수필문인협회(이사장 오덕렬)에 따르면 협회는 오는 3월 1일자로 수필 문예지 '한국창작수필' (종백미디어)을 창간한다. 현재 문예지는 발간된 상태다.

수필가인 오덕렬 이사장은 "지금까지 '수필' 하면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며 "그러나 '창작수필'은 시적인 문장을 가미한 시문학을 지향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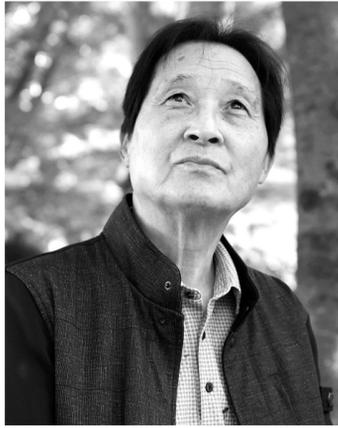
그러면서 "문학은 산문문학과 시문학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수필은 산문이었다"면서도 "창작수필"을 시문학 차원의 창작문학으로 격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국창작수필' 창간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오덕렬 수필가를 비롯해 여러 작가들이 힘을 보탰다. 광성숙, 김창승, 최광식, 하현규, 박형선, 박형숙, 송영문, 강순일, 안순례, 이정남, 정시연 등이 주축이 됐다.

"창작수필" 개념은 10여 년 전부터 이관희 작가와 함께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연구도 하고 창작도 했는데 현재는 광주 외에는 모임이 중단된 상태이지요."

오 이사장은 창간을 3월 1일자로 한 것에 대해 "깨어 있는 문학정신은 독립정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창작수필' 연구는 미약하지만 광주에서 이어가며 뿌리를 계속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협회가 추구하는 기치는 '통합'이다.



오덕렬 수필가

"소 장르의 통합이자 마음의 통합"이라는 의미였다.

"창작수필"은 시적인 산문 외에도 상상, 즉 허구를 작품 속에 녹여내는 데도 지향점이 있다. 오 이사장은 "영국의 수필가인 찰스 램은 수필 작품에서 허구를 적용했다"며 "이전에는 수필에서 허구적인 요소를 배제했는데 찰스 램은 허구를 활용함으로써 수필 문학을 격상시켰다"고 강조했다.

일반 수필가나 독자들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사전에 '창작수필'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생각과 느낌을 상상의 힘을 빌려서 완성한 예술"로 규정하고 있다. 즉 "허구를 통해서도 수필 창작은 가능하다"는 게 오 이사장의 견해다.

당초 '한국창작수필'은 지난해 협회가 펴낸 수필 연간집 '바시미'를 통해 구체화했다. '바시미'는 한옥 기와집의 추녀가 들린 부분을 일컫는 건축용어로 우리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미를 지칭한다. (바선의 코가 올라간 부분도 바시미라고 한다.)

오 이사장은 지난해 연간집 '바시미' 발간 당



시 "2025년 3월 1일 '한국창작수필' 창간과 연계된다"며 "그 기치는 수필통합으로 '산문수필'과 '창작수필'의 한집살림을 펼쳐나간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창간호에는 이관희 작가, 문순태 소설가, 김병욱 평론가(충남대 명예교수), 임병식 수필가를 고문으로 모셨다. 원로 손봉호 작가, 아나운서 출신의 이부림 작가, 철학 수필의 대가 홍해랑 작가 등의 신작을 게재했으며 수필가 '바람의 기억' (이경은), '현대 창작산문 소개' (오덕렬), 이관희 작가의 현대문학 이론화 운동 자료 등도 실렸다.

또한 전국 수필가들 황주영, 유병숙, 탄인석, 임인택, 탁현수, 정선모, 박상률, 서순옥, 송성련, 서숙, 김귀선, 유현, 정미란, 제은숙, 성혜숙, 박용수, 정태현, 박옥주, 광성숙, 최광식, 김광렬, 김창승 등이 작품을 선보였다.

아울러 제1회 신인 문학상 당선자 윤옥현의 '맛쟁이새', 안순례의 '봉정암 가는 길'도 독자를 찾아온다.

창간 것발은 올렸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오 이사장은 "비용이 제일 문제이므로 내실을 기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오 수필가는 '창작수필'의 미래를 낙관한다고 전했다. 스웨덴 한림원이 노벨상 선정 당시 한강 소설의 특징을 '혁신적 시적 산문'이라 설명한 부분은 의미가 깊다.

"창작수필"은 한강의 문체, 즉 '혁신적 시적 산문'과 닮아 있어요. 세월이 흘러 언젠가 문학의 전반적인 환경이 수필로 바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문학 장르의 중앙에 '창작수필'이 앉게 될 날도 현실화 되리라 기대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동료작가 소설읽기 이번엔 장편 '옥봉'

오늘 비트윈 디제이아카데미 학원...이옥봉 비극적 삶 그려

조선의 대표 여성 시인으로 허난설헌, 황진이, 이매창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문학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인들이다.

여기에 한 명을 더 추가한다면 이옥봉을 들 수 있다. 왕실의 계보를 잇는 집안에서 서녀로 태어난 옥봉은 시를 짓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다. 내면에는 늘 시에 대한 열망이 꿈틀거렸지만 여존남비의 유교적 문화 속에서 자신을 자제하며 살아야 했다. 이미란 소설가(전 전남대 국문과 교수)가 진행하는 '동료작가 소설읽기' 13회째는 장편소설 '옥봉'을 읽을 예정이다. 27일 오후 2시 비트윈 디제이아카데미 학원 1층.

장정희 소설가가 지난 2020년에 펴낸 장편소설 '옥봉'은 천부적 재능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삶을 살다간 이옥봉을 그린 작품이다. 시 한편으로 인해 남편에게서조차 버림받고 홀로 쓸쓸한 생을 살아야 했던 비련의 주인공이다.

장편 발간 당시 장정희 작가는 "처음 시를 몸에 감고 물에 빠져 죽은 여인의 이야기를 접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일었다"며 "그게 사실이든 신화적인 상상이든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장정희 소설가



이미란 소설가는 "이번 동료작가 소설 읽기 시간에는 장정희 작가의 '옥봉'을 토대로 진행한다"며 "입란 직전 남편으로부터 내쳐지고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는 파란의 주인공 '옥봉'을 통해 삶과 예술, 당대의 억압적 문화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정희 작가는 2004년 '문학과 경제'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왔으며 지금까지 작품집 '흙, 스위트 흙', 청소년 소설 '백지GO 박지GO'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국악 연주자·무용 '열정 단원' 찾아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시립창극단 다음달 5일까지 공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예술감독 박승희)과 시립창극단이 비상임 예능단원을 각각 공개 모집한다. 총 7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오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서류전형과 실기평가, 면접을 거치며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먼저 창극단은 남녀 무용수 각각 1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실기평가는 3월 19일 창극단 중-대연습실에서 실기 평가를 진행하고 최종 선발되면 위촉 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

남성은 실기 과목으로 '한량무', '창작무(자유)'를, 여성은 '살풀이'와 '창작무'를 지정 과목으로 각각 7분 이내에 선보여야 한다. 공연복(한복) 착용 필수, 접수 시 MR(음원) 제출.

국악관현악단은 가야금, 거문고, 소금, 대피리,

해금 연주자를 1명씩 선발한다. 순서대로 '어린꽃', '섬화', '길', '새날의 봄', '활의 노래'와 함께 3분 이내 '초검곡'을 연주하게 된다. (악보 보면서 오디션 가능, 무반주로 인해 고수동반 불가)

실기 평가는 3월 20일 국악관현악단 연습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5월 7일~12월 31일 근무한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및 시립창극단(직무대행) 박승희 예술감독은 "젊고 열정 가득한 비상임 단원을 선발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과 창극단도 예술가와 '동반 성장' 했으면 좋겠다"며 "미래 30년의 주역이 될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 여성사 발간·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광주여성가족재단, 올 사업계획...남성폭력 피해 지원안 구축 등

'구술채록을 통한 광주여성사 발간', '남성폭력 지원 방안 구축',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구축' 등...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재단)이 최근 '2025년 주요 사업계획'을 밝혔다.

먼저 재단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과 맞물려 지역공동체의 변화·발전에 기여한 광주 여성 생애 구술 채록집을 발간한다. 주제는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이며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춘희 공동대표, 광주교육대학교 임선화, 광주여성회 장세레나 대표 등 총 9명이 외부 필진으로 참여했다.

(4월 발간 예정)

이와 맞물려 재단은 오는 5월 17일 '세계인권도시포럼' 색션에 참여, 채록집의 가치와 발간 소식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사업을 맡고 있는 진은주 실장은 "전국에서 '5월 여성사'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의 가치를 조명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구술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상충하는 면이 발생할 수 있다. 꼼꼼히 검증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단행본으로 엮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재단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남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의 제도를 보완,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여성 중심의 성폭력 지원 시스템을 양성으로 확장해, 남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광주여성들의 발자취를 담은 도보여행 '광주여성길', '문화해설사 보수과정' 등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완한다. 여성가족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광주젠더포럼'은 연중 운영하며 '젠더브리프', 분기별 '성인지 통계 인포그래픽스' 등 젠더동향 간행물을 온·오프라인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